



한국고킹(주)

사료첨가제 메이커인 한국고킹에서는 더욱 더 영업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현대양계사에서 수고하던 장경국씨를 영업부로 특채하였다.

서울부화장사무실이전

서울부화장은 사무실과 전화를 다음과 같이 이전변경하였다.

이전주소: 서울 성동구 천호동 403(천호동 네거리 축산센타내)
변경전화: (55) 1066

지산부화장

전라도 광주시에 자리잡고 있는 지산부화장은 이번에 전화를 변경하였다. 변경된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Tel. 광주 (3) 0388

인산농원(주)

지난 달에 민덕기씨가 대표이사직을 의원사직한 이후 공석으로 있던 대표이사에 전 한국전력중역 및 별표전축회장(천일사)직을 맡아 활약하던 김영오씨, 부사장에는 박창수

씨를 맞이하여 새로운 체제를 정비하게 되어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

삼양약화학

한국고킹에 근무하던 이명주씨와 김훈만씨가 독립하여 동물약품 메이커 삼양약화학(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1가 27의 12)을 설립하여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또한 고킹에서 활약하던 백연수씨를 특채하여 영업부를 강화하였다. 전화 55-3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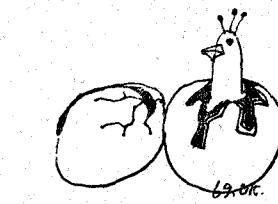
구리부화장 발족

인산농원 대표이사로 있던 민덕기씨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인산농원의 후원을 받아 구리부화장을 개업하고 육계전용종 이시이 F707을 부화하기 시작하였다. 종란은 신성농원(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방신리 17)과 특약으로 공급받고 있으며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인창리 559번지 전화: 구리 265

홍성사료 전화변경

홍성사료는 신학기를 맞이하여 지방대학학생들의 항학열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대구영남대학교 축산대학에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한편 지난 71년 12월 19일부터 전화번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새전화번호 55-3281
55-4230
55-4046

한국사료협회

—육계 10,000수 일선장병에 위문품으로 전달—

한국사료협회 회원일동은 지난 '71년 12월 27일 흑한에도 국토방위를 위하여 전방에서 수고하는 국군 장병의 노고에 다소나마 보답하고자 냉동닭 고기 약 10,000수를 육군 제720부대로 전달하였다.

한국부화협회 제8차 정기총회 개최

부화협회는 지난 '71, 12월 22일 서울시 축협회의실에서 제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장의 인사와 사료협회 유윤수부회장의 사료현황에 대한 특별강연이 있은 다음 71년도 사업보고와 수지결산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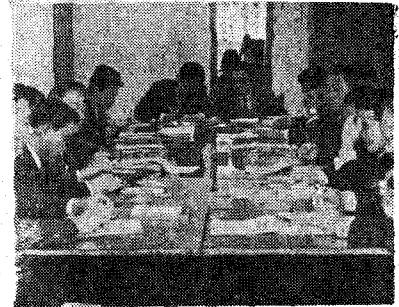
었고 신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의 통과 및 감사장의 수여식이 있은 후 폐회되었다.

초생주생산 조절협의회

이번의 육계파동이 부화업자들의 무분별한 초생주생산과 에 그 원인이 있었으므로 초생주생산을 조절하여 초생주의 덜평과 일부 불량 병아리의 생산을 억제시키기로 하였다. 그래서 생산조절사업의 첫걸음으로서 지난 1971년 12월 31일에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기 위하여 한국사료협회 회의실에서 관계인사들과 협의회를 가졌다.

참석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영진(농림부 축산국장)
유윤수(한국사료협회부회장)
송정택(한국가금협회 전무이사)

이계조(한국부화협회장)
최병인(농림부 낙농과장)
허종관(농림부 축산과장)
최상진(조일부화장 사장)
장용식(유축농업연구소장)
조민구(한국세이버협회)
김상곤(인산농원 양계부장)



(초생주생산조절협의회)

퓨리나·코리아(주)

사료메이커인 퓨리나·코리아에서는 지난 1월초에 송찬영(서울동대 축산과졸)씨를 특채하여 영업부를 강화케 되었다.

종계육종사업협의회

1월 14일 축산시험장에서는 당시협정의 육종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분야의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참석진은 다음과 같다.

농림부 축산국장 및 관계관
농촌진흥청 관계관
국립종충장장 관계관
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한국가금협회
한국부화협회
각도종축장장

가금협회

—제3회 육용계경제능력
검정성적발표—

(업) 한국가금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정사업 중 제5회 산란계 검정성적은 본지 2월호에 발표되었고, 제3회 육용계 검정성적 발표는 검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본지 3월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계)

—사료가격 인하 건의문 제출—

(동)

가금협회는 양계업계가 근년에 없던 불황으로 많은 양계인들이 도산의 위기에 처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 보고 지난 1월 관계 당국에 사료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하였다. 건의문의 골자는 양계산물 생산비 구성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중 배합비율 60% 이상 차지하는 옥수수의 가격이 톤당 15\$ 하락하였으므로 다른 제반 여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배합사료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함)

—전화 증설—

업무의 편의를 기하기 위해 전화를 더 증설하였다.

전화번호 (26) 4692

축산법시행규칙개정안협의

현 축산법시행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1월 7일 농림부주최로 가금협회에서 현축산법시행규칙에 대한 가금협회 및 부화협회의 개정안을 가지고 협의하였다. 협의된

조문은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였으며 참석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허종관 농림부 축산과장
이광희 " 중소가축계장
최창해 가금협회부회장
이필용 가금협회부회장
박도현 가금협회이사
이계조 부화협회장

회 총재를 역임하였다.

축산경영연구소

축산경영연구소에서는 지난 1월 15일에 이사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전기 수고하면 최성훈(사무국장)씨가 그만두게 되고 신임 사무국장에 오세정교수(전국대축대)가 피임되었다.

양계진흥에 관한 협의회

소신종계원에서는 치밀한 경영계획을 세우기 위한 조사, 통계, 분석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기획부에 정관모(서울대축산과졸)씨를 특채하여 앞으로의 불황타개 및 견실한 경영에 만전을 기하리라 한다.

세이버협회 총회 개최

지난 1월 13일 세이버협회는 한일관에서 다수의 신구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협회지를 발간하기로 결의하였다.

건대 이사장 유석창씨 별세

전국대학교 재단이사장인 常虛 유석창박사가 지난 1월 1일 오전 5시 2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2세.

장례는 지난 1월 7일 오전 11시 성동구 모진동 전국대 교정에서 사회장으로 거행하였는데 장자는 동대학 구내이다.

유박사는 1946년 전국대학교 전신인 정치대학을 설립하고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전국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유박사는 특히 농업 교육에 힘써 한국지역 사회지역 개발협회장과 전국농업기술자 협

지난 1월 20일 오후 2시에 농협중앙회에서는 양계진흥에 관한 협의회가 열렸다. 경북지방의 양계인들이 양계산물의 가격하락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선출한 이학철(가금협회 경북지부장), 유종래(동회부지부장) 정근기(영남대 교수)씨 등의 대표들이 수차에 걸쳐 업계의 지도급 인사들과 만난 후 개최되었는데, 동협의회에서는 ①양계업의 불황요인분석 ②양계업의 불황타개책 및 불황제거방안 ③양계진흥협의회 기구 설치 등이 논의되었으며 양계불황이 있을 때 잠정적인 해결기구로 양계진흥협의회를 설치하기로 가결했으며 회장: 이재근, 부회장: 이학철, 간사: 유황씨를 각각 선출하였다.

참석자: 강금노(부화협회 이사) 김영희(영육농장 대표) 박도현(부화협회 이사) 송정택(가금협회 전무이사) 유횡(농협중앙회) 오세정(전대 교수) 오봉국(서울대 교수) 이필용(가금협회 부회장) 윤희섭(전국대 교수) 이학철(영남대 교수) 이재근(고려대 교수) 유윤수(사료협회 부회장) 유종래(대구축협조합장) 이광희(농림부중소가축계장) 정근기(영남대 교수) 최창해(가금협회 부회장) 허종관(농림부축산과장) 이계조(부화협회 회장)